

# 군산근대역사박물관, 시민참여 전시 추진

시민열린갤러리·장미갤러리, 전시공간 제공·홍보물 제작 지원으로 지역 작가 활동 공간 자리매김

군산근대역사박물관 시민열린갤러리와 장미갤러리가 지역작가 전시 지원 사업으로 군산 지역 작가들의 활동 공간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박물관 시민열린갤러리와 장미갤러리는 매년 10개팀 이상의 시민참여 전시 추진으로 군산 작가들의 활동 공간으로 큰 호응을 받고 있으며, 전시 참여자들에게 전시공간 제공과 함께 리플렛 등 홍보물 제작을 지원하고 있어 시민 작가들의 문화예술활동 지원 창구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박물관은 매년 군산시민과 군산시 소재 문화 예술단체를 대상으로 시민 전시 참여자를 선정하고 있으며, 지난 해 12월 공개모집을 통해 2021년 전시 참여자 총 17팀을 선정(시민열린갤러리 10팀, 장미갤러리 7팀) 연간 전시계획을 확정했다.

박물관 1층 시민열린갤러리에서는 현대미술 분야 작가들의 모임인 ▲카벨루 팀의 전시 '다 전이 오는 28일까지 열리고 있으며, ▲손성욱 작가의 사진전 ▲이정경 작가의 한지공예전 ▲안상상 작가의 규방공예전이 상반기 중 열릴 계획이다. 하반기에는 ▲조인호 작가의 서예전 ▲미술동호회 '그림:.'과 ▲군산여류 화가회의 단체전에 이어 ▲박소연 ▲백숙자 ▲이기운 작가의 개인전을 추진할 계획이다.

장미갤러리에서는 빛의 화가라고 불리는 채수영 작가의 개인전이 오는 16일까지 개최중이며, 이어 ▲강경숙 ▲전덕희 ▲배수정 ▲김윤임 ▲최주희 ▲신동일 작가들의 전시가 계획되어 있다.

또 올해부터는 시민참여 전시 운영 시 박물관



군산근대역사박물관 시민열린갤러리와 장미갤러리가 지역작가 전시 지원 사업으로 군산지역 작가들의 활동 공간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사진은 시민열린갤러리.)

관 홈페이지를 통해 전시 작품을 관람할 수 있도록 온라인 전시를 병행 운영해 직접 박물관을 찾지 못하는 이들에게도 시민 작가들의 전시를 관람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박물관관리과 관계자는 "매년 지속되는 시민 참여 전시 개최를 통해 관광객들에게는 군산

의 우수한 문화예술 경쟁력을 홍보하고, 지역 작가들에게는 전시공간과 전시 홍보물 제작 지원을 통한 시민들의 예술 활동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며, 2021년부터 온라인 전시병행 운영으로 시민작가들의 작품 홍보 채널을 확대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군산=남현봉 기자



사진은 제4회 시니어춘향 선발대회 대상 수상 모습.

## 남원시, 시니어춘향 선발대회 개최

5월 1일 광한루원 완월정서... 15일~4월 9일까지 접수

남원시는 제5회 시니어춘향 선발대회를 광한루원 완월정에서 5월 1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대회를 코로나19로 인해 대회 개최에 고민이 많았지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 하에 대면행사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대회는 만 60세 이상 여성 어르신을 대상으로 노년기 개성적인 자아실현의 기회를 통해 신노년 문화 확산을 목표로 하는 것인 만큼, 주최 측은 사회적거리두기로 오랫동안

자아실현을 위한 꿈과 열정을 어르신들을 위해 꿈과 희망을 드리하고자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됐다.

대회는 참가신청, 서류심사, 심사결과 개별통보, 본선대회 순으로 진행되며, 접수기간은 3월 15일부터 4월 9일까지 남원시노인복지관으로 접수하면 된다.

한편, 춘향제전위원회와 남원시는 기존 5일간 진행되던 춘향제를 안전을 위해 4월 3일부터 5월 19일까지 매주 토·일 분산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 국립민속국악원, 상설공연 답판·목요다락 진행

국립민속국악원(원장 왕기석)은 3월 1개월간 올해 새롭게 선보이는 상설공연 답판, 목요다락을 매주 오전 11시(수), 오후 7시(목)에 펼친다.

'답판'은 왕기석 원장과 원기중 문학박사의 진행으로 명창들의 소리와 함께 전문가의 깊이 있는 해설을 통해 관소리의 정확한 의미와 사실을 알아보는 시간으로, 10일에는 별주부와 토끼의 만남을 주제로 동물의 눈을 빌려 강자와 약자 사이의 대립과 갈등을 주제로 한다.

다불어 '국악계 아이돌' 김준수(국립창극단)가 출연해 미산제 '수궁가' 중 김집승 삼자다름, 법 내려온다~ 일개한 퇴 대목을 들려준다. 미산제 '수궁가'는 송홍록-송광록-유성준-정광수-박초월로 이어지는 소리 계보로, 동편제의 우직함과 서편제의 계면성이 조화를 이루며 상청 하청을 넘나드는 음과 화려한 시김새가 특징이며, 3월 매주 화요일 오후 1시 내

이버 오디오를 통해 온라인 서비스도 운영한다.

'목요다락'은 매주 목요일 다양한 장르의 전통공연예술로 국악과 변화무쌍한 전통공연예술을 만날 수 있는 무대로 11일에는 아쟁 연주자 김영길의 '이순지곡(耳順之曲)'이 펼쳐진다.

김영길이 선보일 이번 무대는 박종선류 아쟁 산조, 쇠춤, 세대의 아쟁을 위한 핫튼가락, 흥타령 시나위 등이며, 산조음악의 진수를 들을 수 있는 무대로 우리악기와 음악이 갖는 깊은 울림의 맛과 멋을 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상설공연은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 '목요다락'은 오후 7시이며, 예약은 카카오톡채널과 전화(063-620-2329)로 가능하고, 코로나19로 인해 사전예약제만 운영, 관람료는 전석 무료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 군산근대미술관, '둘, 셋, 공동체'展 개최

군산근대역사박물관의 분관인 군산근대미술관(구 18은행)이 오는 4월 18일까지 55일간 전북도립미술관 소장품으로 구성된 '둘, 셋, 공동체'展을 개최 중이다.

군산근대역사박물관과 전북도립미술관이 협업으로 준비한 이번 전시는 전북도립미술관 소장품 중 일부를 엄선해 도내 시군 전시공간에 작품을 전시, 더 많은 도민에게 미술품 감상 기회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찾아가는 미술관' 사업의 일환으로 기획됐다. 전시 작품은 서양화, 한국화, 판화, 공예 등 홍순무 화백 등 13인의 작품 16점으로, 도립미술관 소장품이다.

한편, 군산근대미술관은 본래 이름은 (구)18은행 군산지점으로, 지난 2008년 문화재 등록 후 보수·복원 과정을 거쳐 미술관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도립미술관 연계 전시를 포함해 군산 출신의 원로작가 초대전, 자체 기획전 등으로 연 4회 정도 전시를 개최해 군산을 찾는 관광객들과 군산시민들에게 예술작품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군산=남현봉 기자

## 미디어 통한 지역관광 활성화 특강

완주군, 정책·문화관광 분야 홍보 담당 공무원 대상 서병기 대중문화평론가 강연

완주군이 미디어를 통해서 지역관광 활성화 열쇠를 찾기 위한 특강을 개최했다.

4일 완주군은 정책·문화관광 분야 홍보 담당 공무원 20여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콘텐츠 산업 변화와 지자체 홍보 전략'의 주제로 특강을 열었다.

이날 특강은 완주관광자문단이자 대중문화평론가로 활동 중인 서병기 해럴드경제전문기자의 현장 노하우를 반영한 열띤 강연으로 이루어졌다.

서 기자는 "코로나19로 온라인 콘텐츠 제작과 유통이 급속도로 확산됐고 경쟁력 있는 콘텐츠 지속적 발굴이 필요하다"는 주제를 던지면서 강의를 시작했다.

이어 "완주야말로 요즘 사회적 분위기에 맞는 소규모 여행, 자연·힐링·감성 여행지의 트렌드를 가장 잘 반영하고 있는 곳이다"며

"미디어를 활용한 홍보 전략을 펼쳐 관광객들의 관심을 모을 수 있는 시기가 적기다"고 말했다.

최근 BTS(방탄소년단) 씬매패키지 화보 촬영지로 각광을 받고 있는 소양오성한옥마을, 삼례비밀정 일대를 중심으로 한 홍보마케팅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감정트렌드를 반영한 디지로그(디지털과 아날로그 합성어)와 스토리텔링을 통한 성공 사례들을 소개하며 완주만의 색깔을 담은 전략도 같이 제시했다.

완미너 문화관광과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로 인해 방문의 해를 준비하는 상황에 많은 고민을 안고 있었는데 긍정적인 대안들을 제시해주셔서 법정문화도시와 방문의해 추진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 Here is a to Good a Pension

무주별빛카라반&팬션의 모토는 "머무는 모든이들을 즐겁게"입니다. 모토에 맞게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에게 즐거운 기억을 남겨드리는데 제1원칙입니다. 보기만해도 시원한 구천동계곡에서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들과 지친 일상을 떠나 자연과함께해보세요.



### 무주 별빛 카라반&팬션

주소: 전북 무주군 설천면 백련사길 2-29(삼공리 518)  
전화번호: 010-9433-0696(대표 박태욱), 010-9408-3582(오용선), 063-322-6668